



독외공소(산막골 · 작은재줄무덤성지)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14년

연중 제10주일 | 2024년 6월 9일(나해)

제1독서 창세 3,9-15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마르 3,20-35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퀴바디스” 청년 사제성소 모임

6월 15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2층 성소국



천안·아산 예비신학생 모임

6월 1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쌍용동성당



너 어디 있느냐?



강대원 즈카르야
홍보국장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계
하소서!

기쁨의 부활 시기를 거쳐
성령 강림 대축일과 삼위
일체 대축일 그리고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맞
이하는 예수 성심 성월입
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
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독서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
사건에 대해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난 뒤 눈이 열려 알몸인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령이를 만들어 입었습
니다. 그런 뒤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
니시는 소리를 듣자 하느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
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사람과 그 아내를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지만 맞으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왔지만 핑계에 핑계를 거듭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다른 이의 잘못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 핑계를
핑계로 삼아 하느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고 더 숨으려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그 안
에서 보게 됩니다.

솔직해지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알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느
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
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더
숨어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같이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느님, 그 사랑을 당
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삼위
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하느님께로 나아갑
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교황 프란체스코는 「세계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담화문」을 통해 현(現)시대의 교회가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에 기대하시는 여정”을 걷는 교회로 새로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황이 제시한 쇠신의 틀은 단순한 구조적 형태의 변화를 넘어서는 교회 생활과 사목 활동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바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다양한 주체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생활하며, 서로 관계 맺고,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는 크리스토프 테오발드(Ch. Theobald)에 따르면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형제애, 친교, 사랑의 협력 그리고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항구적인 태도이며 행동 양식이다.

교황 프란체스코는 이를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영성의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갈등을 원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시노달리타스 영성을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견고한 토대는 겸손한 마음이다. 가자의 도르테우스(St. Dorotheus of Gaza)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이라고 가르친다. 실제로 복음적 겸손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노드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마음을 따르며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를 새로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의 쇠신은 순식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금하게 서두른다면 이는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브 콩가르(Y. Congar)는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이는 불행하게도 거짓과 타협하여 진리를 위태롭게 하고 그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개혁을 지연시킨다.”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 갈등을 마주했을 때 교황 프란체스코는 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낙담하지 않고 온화하게 끌어안으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크고 작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회심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집착, 성취욕과 개인적인 이상향에서 벗어날 때 누리는 자유를 살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우상(偶像)만이 자리할 뿐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흠숭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회심을 통해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의 애정과 강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또한 ‘자신의’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활동의 의미를 알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심을 깨닫게 된다.

● 안동훈 안드레아 신부 가수원 주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6.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도 상승했다는 관측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찬미받으소서 23항)이기에 가톨릭교회의 구성원들은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각 교구별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삼척의 맹방해변을 방문하여 연대 활동을 하고, 대전교구는 오는 6월 12일 수요일 방문 예정입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보문산 난개발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거리 미사로 함께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도 우리는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오늘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 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찬미받으소서 245항).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1.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를 시작하며

2022년 3월부터 연재한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글이 어느덧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근거로 미사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각의 예식을 봉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교우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설명이 교우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정신과 전례법을 근거로 설명드렸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전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다는 점에서는 뜻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예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한 전례적인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이고 전례적인 어려움과 궁금증들은 우리가 봉헌하는 전례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전례”를 봉헌하는 데 분심이 되곤 합니다. 현행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 “능동적인 전례”를 강조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교우분들이 형식적인 전례 참여가 아닌 능동적으로 전례를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글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 전례가 거행되는 사목현장에서 능동적인 전례보다는 수동적인 봉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전례 봉헌은 전례 안에 담긴 은총에 찬미와 감사, 기쁨으로 화답하기보다는 경직된 예식으로만 거행되곤 합니다. 또한 전례 봉사자들이 전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신보다는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지금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전례를 봉헌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례의 궁금한 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참된 “정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의 정신에 따라 능동적으로 전례를 거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미사의 예식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으로 글을 연재했다면, 앞으로는 교우분들이 마주한 실질적인 전례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의 후속편으로써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로 연재할 것입니다.

가끔은 어디에다가 묻기 어려워 주저하게 되는 질문들, 그리고 전례 봉사를 하시거나, 또는 전례에 참여 하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교리서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근거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국에 들어온 질문들, 그리고 본당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함께 전례에 대한 답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대전성모병원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는 성인과 아이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겪을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코골이가 아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은 코와 구강, 인두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을 진단합니다. 수면 중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입원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강 내 장치, 수술, 양압호흡기 등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소아에 있어서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저체중과 성장 부진은 물론 짜증, 피곤,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공격성과 같은 행동장애, 학습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코골이·수면무호흡클리닉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에 대해 종합적 진단과 다양한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교구알림

교구법원 공시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나오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 김태일(1976년생, 펠릭스)
- 담당관사 : 박지목 신부
- 때 : 2024.6.20(목)까지
- 문의 : (044)270-3060 교구법원

대전민화위 '평화기원 생활성가 콘서트'

- 때 : 6.22(토) 17:00~19:0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마리아홀 (가톨릭문화회관)
- 내용 : 평화기원 생활성가 & 토크 콘서트(무료)
- 출연 : 최옥희 아나운서, J_Fam(가톨릭 찬양보컬팀)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청년성서 2024년 여름연수 신청안내

- 제99차 마태오 연수 :
 - 7.6(토)~7(주일), 7.12(금)~14(주일) / 대철회관
- 제100차 창세기 연수
 - 8.15(목)~18(주일) / 대철회관
- 대상 : 마태오, 창세기 '공인된 그룹모임' 완료자
- 노트검사 기간 : 6.2(주일)~16(주일)
- 천안지역(하품센터) : 6.23(주일) 15:00~18:00
- 신청 기간 : 6.2(주일)~16(주일)
- <http://www.agnusible.or.kr> 신청계시판
- 문의 : '대전교구 청년성서' 카카오톡 채널

청년 떼제기도

- 때-곳 : 6.12(수) 19:30, 하품센터
- 대상 : 함께 기도할 청년 누구나
- 내용 : 떼제기도 / 진행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문의 : (041)572-7179/hapum7179@gmail.com

주교님과 함께하는 ME 40주년 기념행사

- 때-곳 : 6.15(토) 14:00~18:00, 한밭대학교 아트홀
- 문의 : 010-9746-0179, 010-3637-9746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 <http://familia.djcatholic.or.kr>

본 당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 때 : 6.13(목) 11:00 부터, 총 4주간 / 참가비 : 1만원
- 제목 : 오늘날 신앙생활과 시노달리타스
- 6.13(목) / 시노달리타스와 본당생활
- 6.20(목) / 본당에서 평신도로 살아가기
- 6.27(목) / 시노달리타스와 가정생활
- 7.4(목) / 복음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 곳 : 가수원성당 / 문의 : (042)542-0663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미사 기쁨의 피정

- 신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미사봉헌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
- 때 : 8.24(토) 14:30~25(주일) 16:00
- 피정비 : 1인 9만원 (2인 1실 기준)
- 피정지도 : 윤진우 신부(사목국 부국장)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문의 : 010-8848-5690

교회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가톨릭 음악선교단 '더워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보컬 (남·여) / 소정의 오디션 있음
- 자격 :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대흥동 가톨릭 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6.13(목) 15: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4116-0140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2024년 하계 꾸르실로 참가자 모집

- 여성 제180차 7.17(수)~20(토) 제181차 7.24(수)~27(토)
- 남성 제180차 8.1(목)~4(주일)
- 청년 제15차 8.8(목)~11(주일)
- 모집 : 남성, 여성 각각 60명(선착순)
- 참가비 : 23만원(3박 4일)
- 자격 : 영세 후 만3년 이상 신자로 본당 주임신부와 율프레야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 : 율프레야 간사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하늘 나라 여권 만들기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헤어 봉사자 모집



자세한 사항은 홍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홍보국 (044)270-3041~2, tjubo@hanmail.net

대전교구 성체신심 대피정

- 때 : 6.27(목) 13:00~16:00
- 곳 : 대전 탄방동성당 대성전
- 특강 및 미사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고
예수성심대피정	6.10(월) 09:00	강사 : 박재찬 신부(왜관성베네딕도수도회)	지족역2번출구 08:40 대기출발
치유의밤	6.13(목) 19:00	강사 : 최바오로 신부(대전성모병원 원목실 차장)	지족역2번출구 18:50 대기출발
성시간	6.20(목) 19:00	강사 :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천안아산지구 성령기도회	매주 금 13:30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동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때 : 6.13(목) 11:00
- 곳 :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관
- 주례 : 군중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 공동집전 : 군중교구 사제단
- 참석 : 전(全) 지역 신자 장병 및 민간 신자, 유가족

예수화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각 6주)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 구약성경 아카데미 : 시편 해설 / 주원준 박사
- 룻을 읽자! / 김민 신부
-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 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 내용 : 6.29(토) 출발
- 지역 : 필리핀 바콜로드
- 내용 : 주중영어연수, 주말봉사활동 (봉사인증가능)
- 문의 : 대구청소년수련원 (053)593-1273

제주도 관광안내

- 제주온전기사회에서는 가족, 단체, 골프수송
-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 문의 : (064)758-6476, 010-4566-6476



수도회 및 피정

과달루페집 예수성심 신심 피정 / 대상 : 누구나

- 때 : 6.15(토) 09:30~16:30
- 주제 :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 곳 :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 신청 : 010-6685-1417 (문자 접수)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성경완독 : 6.21(금)~29(토), 7.26(금)~8.3(토)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7.5(금)~7(주일)
- 효소단식 : 7.11(목)~14(주일), 8.9(목)~12(주일)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품 그리기(10주간 / 1:1동반)

- 내용 : 사별로 인한 상처치유 프로그램
- 자녀, 배우자, 부모 사별 /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010-3081-1816 세종 영성트락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 때 : 6.14(금) 20:00~15(토) 02:00
- 강사 : 한연홍 다니엘 신부
-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 곳 : 청주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우리성서모임 '7월 로고스 피정'(3회)

- 때 : 1차-7일(주일) / 2차-9일(화) / 3차-10일(수)
- 시간 : 09:30~16:30 / 각 차수 25명
- 주제 : 율기의 탄원, 감사, 찬미의 기도
- 준비물 : 성경, 피정비(각 차수 4만원) / 점심 제공
- 신청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박 2일 :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 3박 4일 : 6.27(목)~30(주일), 7.18(목)~21(주일)
- 8박 9일 : 6.13(목)~21(금), 7.4(목)~12(금)
- 40일 : 10.4(금)~11.12(화)
- 곳 :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때 : 6.15(토) 15:00
- 곳 : 대전 목동성당
- 문의 : 010-7997-941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6.15(토) 14:00
- 곳 :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중입니다.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소부 문의 : 010-5195-3217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공모전 안내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사편 71,9)



1. 모집 부문

- ① 글 : 자녀에게 남기는 신앙수기 / 1,000자 이내
- ② 사진 : 화목한 가족사진 / 이미지 파일

2. 참여 대상

교구 내 65세 이상 신자

3. 응모 기간

7.5(금)까지 도착

4. 접수 방법

본당별 노인분과 및 노인대학을 통한 접수 및 개별접수

우편) 세종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노인사목부

메일) djsenior@djccatholic.or.kr

5. 문의

(044)270-3066 노인사목부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33.7°C

총 모금 337,657,699원

[5.18~23 모금액] 6,333,370원

본당 5,187,370원 / 개인·기관·행사 1,146,000원

미카엘 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 5일 8/26 발칸·메주고리에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9/23 홍콩·마카오 4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성훈 미카엘 010-8650-969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정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킴벨 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녜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스테인드글라스 이야기 (21)
전주교구 익산 어양동성당 유리화
「말씀의 씨앗 2006」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 **재료** 엔틱글라스 (Antique Glass), 판석유리 (Dalle de Verre)

• **크기** 77x362cm (1ea) 본당우측창 중 부분

• **제작의도**

마태복음 13장 31-32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연속적으로 겹치며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과 색상의 유리 조각들은 대지의 다양한 층을 나타내며, 이는 풍부하고 깊은 토양을 상징합니다. 땅속의 대지와 그 안에 숨겨진 씨앗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품과 자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유리 조각들이 이루는 다채로운 색상과 곡선은 성모님의 온화하고 보호하는 성격을 상징하며, 땅속 깊은 곳에 자리한 씨앗은 생명의 시작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 대지 속에 작은 씨앗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복음이, 사제의 말씀이,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작은 씨앗을 어떻게 키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흐르는 빛 속에 반짝이는 나의 작은 씨앗이 숨어있습니다. 그대로 썩어 없어질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가지를 만들어 낼지는 그 누구의 몫도 아닌 오롯이 내 자신의 몫입니다.

삼교성당의 앙드레 부통 신부 제단화 복원

삼교성당은 2023년 9월 성당 페인트 작업 중 성화를 발견하여, 대전교구 교회사 연구소와 전문가(인천가톨릭대 정수경 교수)를 통해 베네딕토회의 프랑스인 앙드레 부통 신부의 그림임을 확인하였다.



베네딕토회의 프랑스인 앙드레 부통 신부는 서양화와 한국적인 표현을 융화시킨 독특한 화풍을 소개하여 1960~70년대 한국 가톨릭교회 미술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00점의 작품 중 대부분이 소실되고 지방 공소 중심으로 20여 점만 남아 있으며, 주교좌 대흥동성당에 일부 작품이 재현되어 있다. (원본 미발견)

삼교성당은 2024년 4월 성화 복원 작업에 착수하였고, 추후 제단화 복원 과정을 기록하여 삼교성당 벽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게 대전교구 유튜브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제연수



‘2024년도 사제연수’가 5월 14일(화)부터 17일(금)과 5월 21일(화)부터 24일(금) 두 차례에 걸쳐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2024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주교)가 주최하고 대전교구 가정사목부(전담 이영일 신부)가 주관한 ‘2024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가 5월 24일(금) 대전교구청성모당에서 있었다.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국교회 차원의 생명운동’으로 교구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고, 올해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이사야 40,6) - 외쳐라, 가정과 생명의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500여 명이 미사에 참례했다.

2024 찬미반으소서 주간 기념미사 봉헌 - 희망의 씨앗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건 신부)는 5월 27일(월)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2024 찬미반으소서 주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갈마동성당(주임 김동규 신부)이 대전교구의 2040 탄소중립목표를 조기 달성해 첫 탄소중립성당으로 교구장 주교의 ‘탄소중립 SOL(태양)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관저동성당(주임 박찬인 신부), 도마동성당(주임 송우진 신부), 천안성정동성당(주임 임상교 신부)에 ‘탄소중립 LUNA(달)인증서’를 수여했다.

세종성바오로성당 봉헌식



세종성바오로성당(주임 유탁준 신부)은 5월 25일(토)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새성당을 봉헌했다.

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에서 2015년 8월 분리된 세종성바오로성당은 2016년 3월 19일 건축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17년 7월 2일 성당 입당미사를 봉헌했다.

진산성지 순교자현양대회



진산성지(전담 김용덕 신부)는 5월 25일(토) 제8차 순교자현양대회를 개최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에 집결해 말씀전례를 거행한 뒤 장태산을 출발해 진산성지에 이르는 4km 구간을 도보순례했다.

순례 후 총대리 한정현 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을 맞아 순교자현양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순례 중 ‘장안진산성지 순례길’ 명예도로명 제막식을 했다.

예산산성리본당, 신례원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5월 26일(주일) 예산산성리성당(주임 박진규 신부)에서 본당 교우 18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5월 26일(주일) 신례원성당(주임 이건석 신부)에서 본당 교우 24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대전교구가톨릭간호사회 피정



대전교구가톨릭간호사회(지도신부 김제동 신부)는 5월 25일(토) 공주수리치골성지로 피정을 다녀왔다.

31명의 대전교구 가톨릭간호사회원은 ‘지구공동의 집: 깨어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생태환경에 대해 깨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는 여정으로 진행되었다.

송촌동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피정



송촌동본당(주임 이대근 신부)은 5월 15일(수)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본당 평협의 모든 임원(전임 임원들 포함)을 대상으로 90명이 참석하여 1일 피정을 하였다.